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1~1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불광출판사
3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밝은 사람들 총서 14)	권석만 외 4인	운주사	8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홍파 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5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10	토굴가 (원상스님 산방 에세이)	원상스님	조계종출판사

30여년 수행 여정 오롯이 담아내



토굴가
원상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효의 사회화 운동'에 앞장서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4대 대표이사 원상 스님〈사진〉이 그간 써온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2020년에 30주년을 맞는 연꽃마을을 기념함과 동시에, 열아홉 살 출가해 34년째 수행 정진 중인 원상 스님의 지난 세월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은 책이다.

저자인 원산 스님은 "제가 살아오면서 늘 판단을 잘못해 고생스럽게 사는데, 두 가지 판단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젊은 날 출가한 것이고, 둘째는 선방 수좌가 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책은 원상 스님이 일상서 겪은 일화들과 소소한 감상에서부터, 은사인 각현 스님의 뒤를 이어 연꽃마을 책임자로서 자비 사상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까지 모두 아우른 글 모음집이다.

원상 스님 화두는 '연꽃마을'

30년 전 덕산당 각현 스님은 "마을마다 연꽃마을, 마음마다 연꽃마음"이라는 구호로 전국을 누비면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기틀을 만들어 당시엔 불모지나 다름없던 불교계 복지에 새 바람을 넣었다. 연꽃재단 굴지의 시설들은 전국 70여 개를 이루었고, 정부 평가서 상위 5퍼센트 안에 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복지법인 연꽃마을 4대 대표이사
자비사상 계승 발전 바램 담아내
은사스님 기념관과 사리탑 기획중

현재 원상 스님이 이끄는 연꽃마을은, 5년 전 입적한 각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법인 1호 시설이던 용인 전문요양원 옆 천혜의 요지에 법인사무처와 은사 스님 기념관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사리탑을 조성해 백년대계를 기획중이다. 이 책에는 원상 스님이 스승의 뜻을 잇고 재도약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열아홉 행자 마음과 수행서 얻은 깨달음

원상 스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처음 부처님을 믿게 되었다. 열아홉 살 때 집을 떠나 삭발염의(削髮染衣) 했고, 속리산 법주사 행자실 막내가 되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마음이 붕 떠서 보따리를 싸고 싶었을 때 자신을 위로해준 도반 행자님 덕분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 사미십계를 받고 스님이 되었다. 그 순간순간들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원상 스님은 정진 중에 사계절 변하는 풍경을 보고 선정(禪定)에 들던 순간들도 문장에 고스란히 아로새겼다.

"코가 매울 정도로 추운 겨울 새벽, 맑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과 초닷새 달을 바라보는 맛. 인적 드문 오솔길을, 걷는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은 채 걷는 일.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을 문밖에서 바라보는 것. (……) 밀짚모자에 걸망 하나 지고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작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홀로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 고독하지만 다가가 젖고 싶은 새벽안개처럼 신비스러운 자태, 그 시절 나에게 아름다움이란 말없이 서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中에서)

원상 스님이 도반들과 함께 수행을 이루어가는 모습들도 책 곳곳에 유쾌하게 그려진다. 또한 그가 스물아홉 살 때, 토굴에 들어가 살면서 두 해를 같이 보낸 팔십오 세 할머니와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를 보살핀 사연, 즉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토굴가〉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저자 원상 스님은?

1986년 속리산 법주사서 덕산당 각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그해 가을 법주사서 혜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89년에는 범어사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0년 법주사 강원 사교과를 마치고, 3년 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마곡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법주사, 대승사 외 33안거를 성만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천안 은석사 주지, 2001년 대구 정법사 주지, 2012년 북한산 부황사 주지, 2017년 단양 미륵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특히 2017년에는 조계종 금성선원 원장과 그해 9월에는 조계종 전국 선원수좌회 총무분과 위원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맡고 있다. 2018년 8월 의료법인 연꽃마을 이사로 추대됐으며, 2019년 1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2019년 2월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장〉은 사견 물리치고 정견 밝혀"



마음을 어디에 둘꼬?
글 대혜 종고 선사, 역해 청림 지상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1만8000원

〈서장〉 현대 감각으로 풀어내
주된 부분 앞으로 빼 과목 달아
다른 번역서 보다 주제 한눈에

간화선 수행 지침서 〈서장〉을 일반인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 해석한 〈마음을 어디에 둘꼬?〉가 출간됐다.

책 〈서장〉은 선사 대혜 종고 스님이 재가불자와 주고받은 편지로, 간화선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임제록〉 〈벽암록〉 〈허당록〉 등과 함께 선불교의 칠부서(七部書)로 불린 참선 지도서이다.

〈서장〉은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방 수좌들의 중요 길잡이로 일컬어 진다. 수좌들은 옛 부터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려도 걸망 속에 〈서장〉만은 짊어지고 다녔다"고 말할 정도로 수좌들에겐 절대적 지침서이다.

저자인 대혜 종고 선사는 원오 극근 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간화선이 선의 주류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아울러 임제종 선법 가운데 대혜선을 창시한 선사이기도 하다.

〈서장〉을 쉽게 풀이한 〈마음을 어디에 둘꼬?〉는 글의 주된 부분을 앞으로 빼내 과목을 달아 뒤 다른 번역서 보다 주제를 한눈에 금방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자인 지상 스님은 지난 12월 책 〈서장〉을 풀어 냈지만, 스님들을 위한 전문 서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책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새롭게 출판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저자 지상 스님은?

지상 스님은 1986년 통도사서 출가해 통도사 강원서 대교과를 마쳤다. 스님은 송광사 구산 스님에게 받은 화두로 출가 전부터 간화선 수행을 이어왔으며 통도사 선원에서 정진했다. 은해사서 승가대학원(전통강사전문교육원)을 마치고 여천 무비 스님께 전강을 받았다. 부족한 한문을 보강하기 위해 북경수도사범대학을 졸업해 전통 강원과 현대교육의 흐름을 익혔다.

용화사 주지, 울산불교방송 본부장 소임을 살며 포교 활동도 펼쳤다.

안식 필요 때 오래된 언어 들여다보다



흔들리는 날엔
말리꽃 향기를 따라가라
재연 스님 지음/꼼지락 펴냄/1만 2천원

산스크리트 문학 '수바시따' 번역
인도 구전시 114편 다듬어 소개
인간 탄생, 질병과 죽음 등 내용

이 책은 고대 인도인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시 114편을 재연 스님과 시인 안도현이 번역하고 다듬어 냈다. 인간의 탄생과 노쇠, 질병과 죽음 등 숙명적인 부분부터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를 다루며 '삶의 가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짧은 글 속에는 재치와 익살, 조롱이 가득하며 거들먹거리는 자에게는 야유를, 미련하고 무지한 자에게는 냉소를, 가난한 이웃에게는 관심을,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바치는 문장이 번뜩거린다. 독자들은 이 책에 수록된 고대 인도인의 오래된 언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갠지스강이 흐르는 인도 대륙에 사는 사람들과 한반도의 한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색이며 생활 풍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는 시각과 감정의 움직임은 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책은 인도 구전 산스크리트 문학의 한 장르인 '수바시따'를 번역한 것으로, 이 속에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같은 보편적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산스크리트어 수바시따는 '잘 설해진' '멋지게 쓴' '기발하게 만들어낸' 잠언을 뜻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고전문학 작품에 나오는 시와 저자 불명의 문학성 높은 걸작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재연 스님은?

1953년 전북 김제서 태어나 19살에 선운사로 출가했다. 원광대 철학과 졸업 후 태국 왓벤짜마보핏 사원서 초기불교 경전을 공부했으며, 인도 푸나대 산스크리트 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지리산 실상사 주지, 선운사 초기불교 승가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어른을 위한 동화 〈빼빼〉, 산문집 〈입산〉 〈방랑시작〉이 있고 〈티벳의 사랑과 마법〉 〈죽어라! 그대 죽기 전에〉 〈싯타르타의 길〉 〈사성제〉 등을 번역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